

⑦ 연합뉴스 │ ⟨ \\ \text{V 대통령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암; >





뉴스홈 | 최신기사

< 오1한> 환율 1,160.5원..4년1개월來 최고(종합)

송고시간 | 2008-09-26 15:34











최혀석 기자

<외환>환율 1,160.5원..4년1개월來 최고(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30원 상승한 1,160,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5거래일간 20.80원 급등하면서 2004년 8월13일(1,162.30원)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환율은 6.70원 내린 1,151.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151.00원으로 밀린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60원으로 올랐다.

이후 1,155~1,160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환율은 장 후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1,165.00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 매물 유입 으로 1,160원 선으로 떨어졌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주가 약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1천600억원 이상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주 가와 원화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구제금융법안의 의회 통과가 진통을 겪는 점도 달러화 매집 심리를 부추겼다.

정부가 외환 스와프 시장에 최소 1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현물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외 환당국이 스와프 시장에 관심을 쏟으면서 환율 관리는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환은행 김두현 차장은 "미국 구제금융 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저항선으로 인식 된 1,160원이 뚫리면서 손절매수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원.엔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100엔당 1,097.92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1개월 물 스와프포인트는 전날보다 4.00원 오른 -1.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3일에 비해 8.50원 급등했다.

harri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9/26 15:34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院 결국 우크라에

컨 등 후보군"

▶ 02:22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지'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 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기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26 철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ഈ 59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50 안 맞아"(종합)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ഈ 40 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34 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광고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뉴스+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